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력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주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추모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돐이 되였다고 하면서 지난 2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언제나 우리르며 장군님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여온 나날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주체혁명의 혈통을 곳곳이 이으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오신 결출한 령도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였으며 우리 민족사와 세계정치사에 미증유의 대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평장의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며 김일성주의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선군을 한평생의 드림없는 혁명신조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

위에 올려세우시며 민족만대의 룡성번영을 위한 든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시며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열어주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대전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며 이 땅위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게 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를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끄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주체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민족사적업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2년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산악같이 떨쳐나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념원을 구현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쳐왔다고 하면서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시대와 력사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력사를 펼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며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변영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봉해 조선인민군 차수, 과학자들을 대표하여 장철국

과대학원 원장,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르며 수령영생을 위한 총진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친 지난 2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과 혈연의 뉴대를 더욱 역세게 이어온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진군대오의 진두에 서세시기에 류레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도 천만군민의 마음이 든든하고 대진군의 발걸음이 다그쳐진대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며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들끓는 진구마다에서 시대를 진감시키는 새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율출홀, 사적송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어

국력중의 제1국력은 군력이다.

군력이 강해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강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총대 약한탓에 나라를 빼앗기고 인민이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던 우리 민족사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불변의 신념과 강대한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완강한 공격정신과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선군길을 이어나가시며 공화국을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며 그 길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있다는것은 장군님께서 한생도록 간직하신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주체89(2000)년 8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인문사대표단을 만나시었다.

남측인문사대표단을 만나신 장군님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두가지이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둘째가 군력이다.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외세에 운명을 통락당한 지난 리조말엽의 신세를 되풀이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든든히 지키는 정의의 힘은 선군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선군은 민족의 운명이고 존엄

이고 자주이라는 철리를 신념과 의지로 지니시고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고지란 고지들, 령길이란 령길들에 무수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며 군건설과 군병대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시었다.

최전선에 위치한 351고지로부터 언제 어떤 불의의 정황에 부탁칠지 가늠할수 없는 판문점초소, 자기그마한 폐속정도로 길길이 솟구치는 날바다를 헤쳐가신 초도의 배길, 비를 맞으면서도 넘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으시던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들에는 그이께서 헤쳐가신 눈물겨운 선군길의 만단사연들이 어려있다.

오늘 당당한 정치군사강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의 국력은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신념과 배짱으로 장군님께서 걸고걸으신 선군장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대를 이어 장군부, 령장복을 누리는것은 민족이 지닌 더없는 행운이며 끝없는 영광이다.

2년전 그 12월에 또 한번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인 높이 펼쳐지게 되고 백두에서 개 이 이어지게 되었다.

민군대의 무적강군의 위용은 더 처된 민족자주위업은 더욱 곳곳 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지

난해의 첫아침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을 단행하시어 장군님의 선군애국위업의 빛나는 계승의 시대를 펼쳐주시었고 령장의 지략과 용맹, 담력과 배짱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온갖 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올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련이어 유엔 《제재결의》를 발표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반공화국침략전쟁 책동에 광분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승리의 작전도를 펼쳐주시고 침략세력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으시었다.

그러나하면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오 화력타격계획도 최종비준하시었다.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사람들의 감회는 자못 깊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진승 60돐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창조와 건설에서 눈에 띄는 자욱을 남긴 있을수 없는 날과 달이었다.

이 땅에 펼쳐진 전변의 현실은 선군의 보검으로 민족의 존엄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선군장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도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고,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력강화를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과거 민족사가 남긴 뼈의 교훈이고 공화국이 걸어온 65성상이 보여주는 력사의 진리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신 선군의 길을 빛나게 이어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떨치며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번영의 나라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구상이요 철의 의지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감과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결연한 반제국주의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정력적인 령도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었다.

지난 2월 인민군부대들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과 비행훈련, 항공륙

전병강화훈련, 포병화력타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맞는 우리 식의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완성하는것과 함께 무장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에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비롯하여 장거리포병구분대,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와 제1501군부대 등 조국방선의 전초기와 진지들에는 조국수호를 위해 기울어지신 그이의 헌신의 로고와 자욱이 새겨졌다.

선군의 산악으로 불리우는 높고 험준한 오성산의 인민군장병들을 찾으시고 멀적의 작전안을 밝혀주시며 조국수호자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애국의 넋을 심어주신 그날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령장의 선군전만리는 오늘도 매일도 끝없이 이어질것이라는것을 마음속으로 느꼈던것이다.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기울어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지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었으며 건설의 대전성기와 같은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는 조국수호의 기치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송년 의 언덕에서 다시금 진리로 절감하는 소중한 생각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반세기 이상을 헤아리는 우리 겨레의 력사에는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가 별처럼 빛나고있다.

나라가 해방된 후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김정숙녀사시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시나이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전에 나서신 녀사께서 원수들을 무찌르며 바라신것은 전조선의 독립과 삼천리강토에 일떠설 부강조선이었다.

녀사께서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전조선을 해방하자고 투쟁했지 나라의 절반만 해방하자고 그 고생을 했겠는가,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전에는 그 누구도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시었다.

주체 36(1947)년 4월 어머니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았다고, 통일된 강산에서 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면 더 좋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닥쳐온 그때 갈라진 일가친척들보다 먼저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시었던것이다.

그때 한 친척분이 녀사께 왜 녀사처럼 친척분은 아무도 오시지 않았는가, 하며 이제라도 편지를 내어다 오게 하자고 하였다.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 동생은 비록 울수 없지만 언덕에서 다시금 진리로 절감하는 소중한 생각이다.

김연희

통일에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근로자들

은 있었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조국을 통일한 후에 형제들을 모두 찾겠다고, 통일된 강산에서 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면 더 좋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닥쳐온 그때 갈라진 일가친척들보다 먼저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시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복녜 펼쳐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실 때에 언제나 외세의 강압하에 신음하는 남녘겨레를 생각해주시고 한장의 사진을 찍는것도, 새옷 한벌 해입

시는것도 통일된 다음으로 미루시며 굳이 사양하군 하시었다.

그날 녀사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북과 남이 단결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니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애국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다. 한 일군을 만나신 녀사께서는 이번엔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도 참가한다고 하시

면서 외세를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이 나라 민족이라면 누구나 운명을 함께 해야 할 혈육이며 친지라고 하시며 평양에 온 남녘의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 사람들을 열화같은 동료애로 따듯이 대하신 녀사시였다.

살뜰한 인정미와 해박한 지식,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동료애를 지니신 김정숙녀사의 인품에 끌려 벼초 흥명회, 몽양 리운형, 백범 김구를 비

세기를 이어 벌어지는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중정부를 찍고 새로운 력사의 페이지를 열기 위한 중대결심을 천명하시는 령장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회세의 천출명장을 모시어 그 어떤 천만대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온 겨레가 함께 북력을 누릴 통일강성국가의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된다는것을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민족대변인의 시대를 열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명문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이번에 한중도 안되는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감히 도전해나서면서 친하의 몸술시를 하였지만 자기수령을 한몫씩 바쳐 호호보위할 일념으로 불타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허물수 없었다. 지금 인민군대는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는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를 부르며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백두의 담력과 선군의 보검으로 천만대적을 위락파락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시는 천출명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령도만 받드는 무적결사의 백두산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며 최후의 승리를 거어 안아오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어느덧 한해가 저물다. 신년을 마중가는 기쁨도 크지만 송년의 날과 달을 뒤돌아보는 감회 또한 크다. 조국의 운명과 안녕속에 자기의 삶과 생활, 가정의 화목과 행복도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조국의 한해, 조국에 대한 생각부터 앞세운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진승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제부들을 일떠세운 올해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로 가중되는 미제의 침략전쟁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멀적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시었다.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2차례나 시찰하시고 작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보이는 오성산의 까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신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불은기록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자고 하시었다.

올해초 공화국의 정당당당한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고립압살의 도수를 높이고 그로하여 이 땅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

웠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로 가중되는 미제의 침략전쟁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멀적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시었다.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2차례나 시찰하시고 작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보이는 오성산의 까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의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이 있어 이 땅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고 조국인민들은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 대고 조건에 박차를 가하여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수 있었으며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국가

무추동하였으며 체육강국건설에서 큰 결실을 내디디게 하여주었다.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위대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인이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빈듯하게 일떠선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마식령지구에 세계적인 스키장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고 강원도의 드넓은 대지에 또 하나의 세로동관경이 펼쳐졌

으며 철령아래에 청춘파원이 솟아나 보다 통일번영의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고있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나는 조국땅위에 조국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이어 우승하였다는 소식은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조국인민들을 힘있게 고

지나 6월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도록 하시고 자강도와 창성군,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인민들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투쟁으로 적극 고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혁신적인 성과와 기적들,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높이 펼쳐진 이 한해를 통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으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의 령도따라 조국강우에 기여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철석의 신념을 더 굳게 가다듬게 되었다.

최근에 국가와 인민의 리

익을 침해하고 령도자의 사상과 로선에 도전한 불순세력이 단호히 제거된것은 그 어떤 반역적책동도 령도자와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혈연의 뉴대를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혼연일체야말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끝없는 매혹과 호모에 의해 분출되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혈연의 정으로 뭉친 단결의 정화이다.

김수해를 비롯하여 조국을 방문한 제카나다동포들은 김정은최고사령관과 부녀동포들이 뚝뚝 흥분된 모습은 감동적이다. 혼연일체는 이북의 위대한 자본이라고 공화국의 비상한 힘의 실체에 대해 감동을 토로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불패의 힘으로 공화국은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위업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도서 《추억-격동의 10일간》, 《7.27-승리하는 조선》 로씨야에서 발행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도서들이 《추억-격동의 10일간》과 《7.27-승리하는 조선》이 로씨야에서 출판되었다.

도서발행식이 12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켈. 아. 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켈. 아. 드로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전 협회위원장 올라지미르 톨스체프코가 남긴 도서 《추억-격동의 10일간》은 김일성주석의 1984년 5월 소련(당시)방문의 날에 있는 력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그이께서 지니신 위인적품모를 다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조선성명에 나아가고있을 리상인 선군정치에 대폭 기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근로하는 로씨야》 운동성원 나탈리아 벨로코페도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전대시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세계제패를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적인 정치, 선군정치로 하여 미국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포괄화되고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세계무대에서 제 할 소리를 다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조선성명에 나아가고있을 리상인 선군정치에 대폭 기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운동을

본사기자 리경철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받들고 따르자

인민이 대를 이어 부르는 노래

노래에는 해당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뜻이 비껴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에 엄중히 도전해나선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시대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된 지금 공화국의 각지 인민들속에서 급속히 전파되어 높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다.

이 조선 이끄는 힘 억세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는 꿈과 이상 모두다 꽃피우실분 ...

새로 나온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이다. 노래를 부르노라면 특출한 령도실력과 인민사랑의 천품을 지니시고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이 떠오르고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는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금할수 없게 한다.

돌이켜보면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은 노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제의 근화발에 삼천리가 짓밟히고 민족의 머리에 철철암석이 드리웠던 그 수난의 시기 2천만 우리 동포는 백두산에 솟아오른 새별을 보며 《조선의 별》을 노래하였고 희망안고 싸워서 마침내 해방의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해방된 강산에서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리일키며 높이 울려 퍼진 노래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1950년대 후반기 조선로동

당의 지도부안에 배겨있던 나쁜놈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예극의 정당한 로선을 시비하며 정면도전해나섰을 때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받들 개국한 일념을 담아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창작하여 부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옹위하였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위대한 력사적시기인 1970년대에 인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부르며 높이 받들었던 위대한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홀모고 숭배의 정으로 부르기도 불렀던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는 오늘도 이 강산에 메아리치며 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은 류레없이 간고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에 하날도, 땅도, 산천 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고 자연까지도 황포를 부리며 후싹한 재해를 몰아왔다. 끈질기고 포악한 제국주의 무리는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도수를 높였다.

그때 조선에서는 무엇이 울려 퍼졌는가. 원자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강한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라》였다.

노래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인민은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 식량을 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데 한몸을 성사 되고 방패가 되어 나섰었다. 천만이 총폭탄이 되어서라도 장군님을 보위하고 그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군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는 고난을 이

기는 힘이었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는 기적창조의 원천으로 되었다. 복판은 대지에 복판은 인민의 노래소리는 오늘도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태양같이 밝게 웃으시며 《발걸음》의 힘찬 노래소리와 함께 인민에게 다가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시다.

지구를 울릴 그 씩씩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선군조선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을 하루하루 앞당겨오시는 절세위인께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완전히 매혹되고 저저마다 흠뻑이 마음들을 터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 그 대로이시고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승리와 희망의 밝은

래일로 인도하실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모두가 온몸으로 뜨겁게 절감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세상에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인민들이 살고 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처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는 한몸으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 한분만을 굳게 믿고 그처럼 진실하고 그처럼 강렬하게 따르고 받드는 인민은 없다. 그것은 령도자가 한없이 위대하고 령도자의 사상과 뜻으로 무장한 인민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인민들이 있어 수령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을 노래하며 혼연이체의 아름다운 화복을 이룬 모습은 공화국의 힘이고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공화국의 인민은 오늘도 자기 수령,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한분만을 하늘처럼 믿고 살며 그이만을 끝까지 받들고 따를 충정의 일념으로 가슴 불타고 있다. 그 대하같은 민심이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노래가 되어 강산에 울리고 《금반사》, 《봉괴》를 떠드는 적대세력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인민이 대를 이어 부르는 충정의 노래, 신념의 노래는 오늘날도 래일도 사회주의의 강산에 계속 울려 퍼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권지혜

대담 천만군민의 의지는 절대불변하다

최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고 장성택일당에게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되고 관련하여 《통일신보》 기자는 한상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 이번에 공화국이 장성택을 축출할 때에 대한 결정은 공개표현의 의도에 대해 알고싶어하고 있다. 한상술: 지난 시기에도 공화국은 반종파투쟁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였다. 이번 조치가 공화국의 생명이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에 도전해나서고 원수님께서 그도록 아끼시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마구 침해하였으므로 극도로 부패타락하고 변질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된다. 기자: 이번 조치가 공화국의 대내외정책과 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한상술: 공화국의 모든 정책은 국가와 인민의 의사와 의지의 체현자이신 최고령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중도 못되는 반혁명종파분자 장성택일당파위패문에 국가의 로선이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을것은 리골만 큼도 없다.

공화국은 앞으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공화국의 로선과 정책, 원

칙은 언제나 시종일관할 것이다. 기자: 이번 사건을 두고 서방의 일부 언론들이 권력 다툼의 결과인 듯이 보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한상술: 그것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이번에 축출된 자들은 불순 이색분자들이다. 한중도 못되는 반당파분자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리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절대불변할 것이다.

장성택일당이 적발속청됨으로써 우리 내부의 보다 순결해지고 일심단결은 한층 굳건해졌으며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은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원수님밖에는 누구도 모른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2돐을 맞으며 온 나라 각계층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더욱더 설레었다. 본사기자가 만난 각계층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서 사는 김명순: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고보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와 눈물을 참을수 없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평양시민들에게 공감을 물고 기때문에 마음쓰신 장군님의 그 사랑이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몸속 다해 응위하고 받들어나가겠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로동자 심일철: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뵈으면서 승리의 신심이 더욱 북받쳐올랐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원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길순남: 우리 인민군대는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당과 그 위업의 역적의 지지책, 조국통일성전에서 불발을 모르는 총폭탄이 되겠다. 본사기자

독을 책임진 우리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안승민: 이번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대한 적발속청으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해졌다. 백두의 혈통, 주체의 혈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까지 충성다하겠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으신 절세의 위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강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단장인 최은복의장이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기 위해 조국에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천만뜻밖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보낸 지난 2년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분출된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그이의 심중에는 오직

인민만이 있었다. 눈보라강행군, 야전철차와 같은 시대어들은 인민을 위한 그이의 로고가 어 려하였다.

그이의 애국헌신이 있어 조국인민들은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구축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신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결이온 자랑로 로정에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어버이의 다스린 심정으로 재중동포들이 민족의 넋을 지키고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

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심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사랑으로 수놓으신 그이의 혁명력사는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애국충정의 길로 곳곳이 걸어가겠다. 본사기자

간곡한 당부를 되새기며

얼마전 나는 중앙추모대회를 마치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올라 만수대언덕으로 달려갔다.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애걸을 환히 밝혀주시는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보노라니 문득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들에 하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가슴을 치며 울려왔다.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

도는 곧 나의 사상과 령도라고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동무들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

중앙추모대회를 시청하면서 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긴것은 이제는 정말 한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의 원수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더 잘 받들어 모셔야겠다는 오직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원수님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기래도 없다.

장성택과 같은 불순반동분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를 천천만겹으로 쌓는데 나의 작은 이 한몸도 서슴없이 바치겠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리석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 평양진중추모대학에서 -

본사기자가 만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반장 전전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고보니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나라의 방방곡곡마다 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이 아직도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거어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야만 같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자 손순옥은 라남과 성강, 강계

를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계급의 기쁨물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따뜻한 어버이사랑으로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그 사랑을 정녕 잊을수 없

물수 없다고 하면서 원수님의 령도따라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벽한진군길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부원 연구사 정철화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그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받은 장성택일당에게 저지른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이 땅위에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장군님이 그리워

이번에 나는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때 나는 중앙추모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 가족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그 어느 가정보다도 많이 받아온 행복한 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에서 치료보다도 앓고있던 어머니를 몸소 만나시고 아무때나 조국에 오고싶을 때 와서 휴식도 하고 병 치료도 하라고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영광의 그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자신들을 잘 키우라고 고부해주시던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수 없다고 어머니는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안동수)가 전사한지 50년, 60년이 되는 날에는 몸소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생일 90돐에는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까지 마련해주시었다. 해마다 생활보조금도 어머니앞으로 꼭꼭 보내주시고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집을 완전히 새로 꾸려주고 가정



용품도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일가족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만을 가득 안겨주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자신의 건장은 돌보지 않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불같이 헌신하시다가 그렇게도 일찌기 우리결을 떠나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나는 비록 몸은 이역만리에 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통일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가겠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안항진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위대한 장군님 서거 2돐을 맞아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적 같은 신념과 의지를 추호도 흔들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위에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고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래일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떨쳐나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이 땅위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류성동 최용덕

지구가 깨져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결을 떠나셨을 때 나나 우리 인민모두는 이제 한분밖에 안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겠다고 마음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러던 우리가 또다시 너무나 가슴아픈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였던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다. 피눈물의 바다에 쓰러져있던 인민을 그때 어느분도 일으켜세워주시고 희망과 신심을 가슴마다에 심어주며 창조와 행복의 오늘에 이르게

어오셨던가. 그이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이시였다. 원수님이 계시는 조국은 다시 일떠섰고 삼천리에 광명의 해빛이 다시 비쳐들었다. 그런데 한중도 안되는 종파분자들이 원수님의 령도에 감히 도전해나섰으니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성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대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원수님 한분밖에 안 계시다. 그 신념은 지구가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백두산건축연구원 연구사 김경호

혼란과 파국으로 저물어가는 한해

이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남조선에서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개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 정치적 혼란과 파국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에 닿은 해이다.

《국회》는 매일같이 여야 사이의 싸움판으로 수라장이고 거리에서는 보수패당의 정치권력을 규탄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항시적으로 존재하였지만 현 《정권》 하에서처럼 그것이 지속적이고 첨예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남조선보수당국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8대 《대선》은 사실상 불법무법의 선거구배였다. 그것도 그렇것이 정보원과 피뢰꾼사이사령부, 모호한 처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인터넷에 의한 여론 조작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며 현 집권자의 당선을 조작해내었기 때문이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지난 세기 4.19인민봉기를 초래한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특대형의 판권부정선거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집권세력은 정보원과 한쪽이 되어 부정선거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보수세력들은 저들이 저지른 불법선거개입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복남수뇌 상봉담화록문제를 들고나와 《북방한계선포기세력》이니 뭐니 하고 야당을 몰고 늘어섰으며 나중에는 담화록 공개장담동으로 여야사이의 정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내란 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살벌한 폭압정국을 조성하고 이 당을 해산시키려 미친듯이 날뛰면서 위기국면을

해소하려고 발악하였다. 뿐만아니라 음모양모로 검찰의 사건수사에 장애를 조성하는가 하면 《대선불복》이니 《총복》이니 하며 야당은 물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하여 불법선거개입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보수와 진보세력사이의 대립은 첨예화되었으며 그로 하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남조선사회의 혼란과 위기는 단순히 이것만으로 제기되는것이 아니다.

현 집권자의 자기협잡질과 정치를 제 입맛대로 칼질하는 오만과 독선도 남조선의 정치위기를 개관으로 만들어놓았다.

현 집권자는 권력을 쥐자마자 《대통령》선거때 들고 나왔던 기초연금제도,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수많은 공약들을 뒤집어엎어 사회의 불만을 자아냈다.

또한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자들은 그 누구이든 가

차없이 목매기를 하는가 하면 《인사》문제를 비롯한 각 방면에서 주판과 독단을 부려 집권층내부에서도 불평 불만을 자아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채동욱의 사퇴가 그 한 실례이다. 권력층 인물들의 사퇴소동은 남조선은 일대 정치적 혼란의 수렁창속에서 헤매었다.

최근에는 야당의 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후보자들이 대한 임명놀음을 벌여놓아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오죽하면 현 집권자에게 《천하의 고집불통》이라는 악인이 찍히고 집권기간 선거공약이런 공약은 모두 하늘로 날려보내어 거짓말쟁이로 소문난 리명박역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

나왔던 《실적》을 울리지는 못했다. 야유와 조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었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심의 목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오만과 독선, 《불

통》의 고집스러운 독재정책에 매달린 덕을 토포하고 있다.

남조선의 전지역에서는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의 광범한 인민들의 《유신독재부활반대》, 《공안탄압분쇄》, 《박근혜정권퇴진》 구호가 강력히 터져나오고있다.

특대형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하고 보수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진보민주세력 말살에 미쳐날뛰는 《유신》잔당들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와 시위, 시국선언발표, 성토대회, 초불집회, 삭발식과 단식투쟁, 시국미사 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 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다. 집권 1년도 안된 지금 조건의 위기에 처한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처지를 보면 앞으로의 남은 4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불보듯 뻔하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성과》가 아니라 치욕

1년을 마무리하는 요즘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 집권 10개월동안에 이러저러한 《성과》들이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있다.

외교분야에서 《균형외교》, 《신뢰외교》를 통해 여러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였다는것이 그 《성과》중의 하나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외교분야에서 마련한 《협조》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분야에서 협조라는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이다. 여기에서 기본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보수당국이 외교분야에서 협조를 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아는것처럼 현 당국자는 집안살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이 치마바람을 일구며 해외나들이로 한해를 보내다시피하였다.

물론 처음으로 찾은 곳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이 관행으로 여기고있는 미국이었다. 미국행각기간 보수당

국은 상전과 《대북공조》, 《동맹강화》의 미명하에 동족인 북을 모해압살하기 위한 공중이판을 벌여놓고 그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미루는 대가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가입, 천문학적인액수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구입에 대한 강요만 받았다. 이러한 강요와 압박은 《동반자》, 《협력자》 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노복 관계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이 어떤것인가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세력들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는 쓸개빠진 범죄행위를 두고 그 무슨 《협조》에 의한 《성과》로 묘사하고있으니 어찌구무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유럽행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썩다고 남조선 보수당국은 내부에서 일삼던 동족대결자세를 유럽에까지 나가 고취하며 그 무슨 《북인전》이니, 《핵포기와 변화》니 하는 자극적인 대결망언들을 계속 늘어놓았는가 하면 반공화국제재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구걸하는 추태도 부리었다. 그 대가로 철도분야를 개방하여 유럽자본에 팔아먹으려는 망동짓을 서슴지 않았다.

외세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외세에게 팔아먹으려는 보수당국이 그 무슨 《균형외교》와 《신뢰외교》를 떠들며 분주스레 돌아치지만 국제외교무대에서는 그것을 한갓 구걸행위로밖에 치부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현 당국의 외교 《치적》 자랑을 두고 《협조외교가 아닌 치욕외교》, 《속빈강정의교》, 《명성황후가 려강들의 세력다툼에 끼워 끌려다녔던 때가 재현되고있다.》고 개탄하며 울분을 토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협조》의 간판위에 《굴종외교》로 시작된 현 집권자의 정치가 남은 임기동안에 또 어떤 치욕과 불행을 가져다줄지 알수 없다.

민심의 리익을 팔아 사대굴종으로 잔명을 유지해가는 자들이 같길은 오직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간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이 말은 사람들 호상간에 안부를 묻는 말이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는 이 인사말은 상대방에 대한 례의와 존경을 표시한다.

오늘 아침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서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다정히 인사한다.

서로 건넌수목 또 들을수록 언제나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말이다. 사회와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느라니 얼마전 남조선의 고려대학교 대자보에 실린 글이 문득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필자는 철도민영화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반인민적외행을 일삼는 보수패당의 전횡에 사람들이 과연 《안녕한가?》고 물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사회적합의가 없는 철도민영화를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던 공약은 다 깨버리고 이를 반대하는 로

한 앞날로 하여 항상 안녕하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있다.

하기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필자는 친미독재의 《유신》부활책동에 매달리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까지 무참히 말살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인민적외행에 절규와 분노를 터뜨린것이다.

지금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보수패당에 대한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담고 전사회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인터넷

에 새로 개설된 《안녕하십니까》홈페이지는 며칠사이 수만명이 가입하여 현 당국자의 반인민적외행에 대한 규탄의 글들을 연이어 올리

고있다고 한다. 또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정계인사들은 물론 직장 가정주부들과 초등학교 학생들, 70대의 로인들까지 《안녕하십니까?》를 웨치며 집회와 토론회를 열어 벌려 새로운 반 《정부》정치흐름으로까지 번져지고 있다.

인류가 발생하여 오늘까지

례의와 존경의 대명사로 되어오던 인사말이 이렇듯 분노와 규탄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게 된것은 오직 파쇼독재가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회한한 광경이다.

사태와 매국을 일삼고 반동일과 동족대결에 광분하며 악정파 폭압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보수패당이 퇴진하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안녕하십니까》목소리는 더욱 높아갈것이다.

《살기 힘든데 안녕하십니까?》, 《《총복》으로 탄압당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동북공조》로 안녕하십니까?》...

김철호

못한 부정협잡선거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의문과 회의심을 갖고 부정선거의 내막을 밝힐것을 요구해나선것은 지극히 옹당한것이다.

하지만 보수집권세력의 대답은 과연 어떠한가. 《대선》개입사건들의 진 《정권》을 반

대하는 시위와 파업, 항의투쟁들이 한해가 다

가도록 계속되고있는것이 오늘날의 남조선현실이다.

오죽하면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집권야당이 마지못해 《조출한 행사》로 이날을 보내려 하였는가.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돌아서버린 민심을 과연 돌려 세울수 있는가. 이제 만일 다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아마도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오늘이 1년전이라면?

《지발적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보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야당후보를 깎아내리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조작행위를 벌린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공작이비사령부와 보훈처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 《대선》이 정당당파하지도 공정하지도

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선불복세력》, 《헌정파괴세력》으로 몰아대고 특검도입을 한사코 거부하는 한편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검찰의 사건수사진행을 방해해나섰다.

한편으로는 진보적정당에 대한 내란음모사건과 《총복》소동으로 통일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정권》이 출현하기 바



현 집권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남조선종교인들

한 재미동포가 7일 현 집권자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에서 정보원과 권력기관들이 개입한 불법선거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되어온다고 하면서 이 나날

《불법대통령 박근혜는 자신 사퇴하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남조선 전지역을 휩쓸었다고 밝혔다.

남조선의 종교계 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현 집권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세계적으로도 불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반 《정부》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쇼폭압소동이 비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고 단

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아직도 민심을 외면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민중을 대상으로 《총복》몰이, 《마녀사냥》식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현 집권자의 말로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지난 9일부터 당국의 철도민영화책동을 반대하는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9년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총파업에는 1만 1000여명의 철도로동자들이 참가하고있으며 이들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지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촛불시위를 벌리고있다.

이번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반인민적외행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남조선당국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겠다.》

느니,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느니 하면서 무려

거짓말 《정권》, 분노한 민심

140여개의 공약들을 내걸고 각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주함을 피했다.

하지만 집권후 8개월만에 기초연금보장과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발전추진계획, 《국민대통합》을 비롯하여 《대선》공약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비현실성과 자금사정, 환경변화 등의 구실을 내걸고 깨버렸다.

철도민영화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 당국자는 《국민적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나의 국정철학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철도민영화에 대한 사회적론의를 거처기는커녕 민영화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 《정부조달협정》이라는것을 지난 11월 15일 비밀리에 승인하고는 이에 항의하는 철도로동자들의 정당 투쟁에 대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위협을 하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친북》을 운운하며 철도로조조합원들을 《보안법》에 걸려 탄압하려는 기도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쇼폭압에 기가 꺾일 철도로동자들이 아니다. 지금 철도로동자들은 외국 자본과 국소수의 특권세력들에게는 막대한 리권이 넘어가고 수만명의 철도로동자들에게는 실업이 차레지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여 마지막까지 싸울것을 다짐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들어갈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번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

는 특권층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철도부문을 비롯한 남조선경제를 외국자본과 대기업체의 부속물로 만들고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

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자본재벌의 아귀에 넣고 국민의 안전을 돈벌이로 바꾸는것은 곧 매국행위이자 국민을 식민지화하는것》, 《국민의 명령이다.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철도민영화는 4대강사업의 관비》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위기에 처한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발악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욱 높아간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명금룡



《안녕하십니까》



본사기자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이 마주서 있는 것이 이채를 띤다.

방문기 《꿈같은 행복속에 삽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보고싶어 얼마 전 우리는 2현관 42층 4호를 찾았다.

알고보니 김일성종합대학의 재료과학부 교원 라인철 박사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니 라인철교원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방 안으로 이끌었다.

궁궐같은 새 집에서 사는 심정이 남다르겠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짓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새집들이한지도 퍼그나 지났지만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 꿈같은 행복속에 살고 있습니다.》

갓가지 분야의 책들이 꽂아놓은 서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라인철 교원은 책상앞에서 설치된 책장을 가리키며 리용해보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이 한창이던 나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필요한 책들을 책상에 담아 꺼내볼수 있도록 책장에 책장을 설치해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이렇게 살림집의 하나하나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일깨워주시고

다들어주신 우리 원수님이 삽니다.》

이때 부엌에서 저녁식사준비를 하던 안혜 김경옥여성이 기여어들어 한마디 보냈다.

《부엌도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꾸려졌는지 몰라요.》

그의 말대로 수도에서 찬물과 더운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부엌에는 가정용가스 콘로와 배풍기도 갖추어져 있었다.

김경옥여성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심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자기가 시집을 때 부모가 마련해준것보다 더 훌륭한 그릇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었다고 목메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집주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특색있게 아치형장식을 한 공동살림방이며 아늑하게 꾸려진 침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든 면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져 있었다.

《원래 새 집에 오기 전에 살던 집도 그만하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이렇게 200여㎡에 달하는 5칸짜리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저희들에게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계 집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자본주의 세상같은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교원들모두가 복속에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거리에 나서니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 복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이 어리여었다.

본사기자

《마식령속도》 창조의 기상이 나래 친다

《마식령속도》 창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공화국의 현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만 놓고봐도 그렇다. 마식령스키장은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게 될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이다.

이곳에서 군인건설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 창조의 열풍을 일으켰다. 산세험한 지형조건과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공사과정에 많은 난관이 조성되었지만 군인건설자들은 주저않지 않았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문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는 기간에 군인건설자들은 스키장운영을 위한 삭도와 눈포시설공사,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지대정리와 원형형성을 립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천연수림뿐이던 산지에 세계적인 스키장의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었다.

충천한 기세로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상은 인민들의 모든 건축물들은 산골맛이 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흠잡을데 없이 단장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특색있는 마식령호텔과 관리건물,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여러 개소에 자리잡은 휴식장들, 눈포용수지들, 직승기착장, 수심동의 종업원살림집 및 편의봉사건물, 삭도조종실 등 전반적인 대상건설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스키장건설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내에 무조건 끝낼 결심밑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스키주로의 수에 있어서나 종연장질이에

있어서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이 완공을 앞두고있다.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세계적수준의 마식령스키장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때에 세포동관건설에서 상은 인민들의 모든 건축물들은 산골맛이 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흠잡을데 없이 단장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특색있는 마식령호텔과 관리건물,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여러 개소에 자리잡은 휴식장들, 눈포용수지들, 직승기착장, 수심동의 종업원살림집 및 편의봉사건물, 삭도조종실 등 전반적인 대상건설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스키장건설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내에 무조건 끝낼 결심밑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스키주로의 수에 있어서나 종연장질이에

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와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현대적인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이 솟아났다. 단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화려한 문수물놀이장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마식령속도》 창조의 열풍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최대성



이렇게 최어금녀성의 마음속에는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갈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원자힘 현미경 연구제작

은 나라에 최첨단과학의 불길기 세차게 타넘는 속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세계적수준의 원자힘현미경을 연구제작하였다.

이곳 대학에서 연구제작한 원자힘현미경은 원자힘검측계통, 나노이송계통, 전자조종계통, 방직계통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nm급의 분해능으로 시료의 표면상태를 관측하고 조작할수 있는 첨단나노측정설비이다.

이 현미경은 주사굴현미경과 함께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의 하나인 나노기술연구에서 눈과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측적인 설비로서 시료와 탐침끝의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미세한 호상작용력을 측정하여 표면상태를 관측하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원자힘현미경으로는 원자최고의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있지만 전기전도성을 가지지 않거나 전기전도특성이 나쁜 시료에 대한 표면관측을 할수 없는 주사굴현미경의 원리적인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전도성시료는 물론 비금속재료나 생물시료도 분석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이미 주사굴현미경을 개발한데 이어 원자힘현미경을 새로 연구제작함으로써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나노재료 및 나노제품개발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나노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변함없이 걷는 길

이때부터 최어금녀성만이 아닌 온 가정의 마음은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달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계신 분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 나. 우리도 할것 뚝뚝어 요.》

그녀는 아들에게 그는 그의 자그마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감사를 보내주시길 줄 어찌 알았으랴. 만사들의 축복속에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으며 그는 격정에 목메어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을 주는 지원사업을 더 퉁이 크게 하리라 마음다지었다.

그는 더 많은 집집승을 길러 건설자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아들 철남이와 함께 남모르는 밤길을 걸을 때도 많았다. 어느날 지원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아들 철남이가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어머니,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위한 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고 생각하면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철남아, 이 길에 우리의 행복도, 삶의 보람도 있는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동윤

체육 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

한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금메달 150여개를 비롯하여도 합 360여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국제경기메달획득수에서 4.3배의 장성을 이룩한 것으로 된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기초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체육부문의 금메달열풍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조국인민들에게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갈 심과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혁봉, 김정선수들



2013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설경선수



2013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남자 고전형 55kg 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윤원철선수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력기 56kg 급경기와 62kg 급 끌어올리기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엄원철, 김은국선수들



제14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국옥선수

